

# 대학의 정신과 이념 회복

오 인 탁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늘날 지식과 기술과 경영은 세계적 경쟁질서의 중심에 있다.  
대학도 이제 국가 내에서의 경쟁에서 국제적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학의 정신과 이념 회복'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본다.

## I.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보는 시점

대학의 정신과 이념의 회복, 감감하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우리의 대학 정신과 이념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비록 대학의 재정이 어렵다 해도, 비록 많은 대학들이 학생모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묘책을 찾기에 골몰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대학의 황금기를 누리 고 있다.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여본다. 4년제 일반 대학교와 대학원의 급증 현상은 우리나라의 대학 정신과 이념의 힘이요 승리 인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학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민족 특유의 교육

열과 수요 공급의 시장경제가 빚어낸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의 정신과 이념이 확실하 서 있고, 또 힘있게 우리 사회를 사로잡아서 대학의 설립물결이 반 세기가 넘도록 계속되 었다고 하기 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시대의 정신적 비등이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 최고 의 고등교육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겠다. 물론 설립정신과 이념이 없는 대학은 없다. 그 러나 그러한 정신과 이념으로 교육하는 대학 은 대단히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없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미미하다.

대학의 정신과 이념의 회복이 요청되고 필 요한가? 우리는 지나간 30여 년 동안에 GNP 600불 시대로부터 1만불 시대로 숨가쁜 경주 를 하여 왔다. 이제 2만불 시대를 향하여 뛰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격랑을 헤치고 향해

하느라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돌아볼 경황이 없었다. 대학은 시대가 강조하고 사회가 요청하면 이에 응하기에 바빴으며, 존속하고 발전하기에 바빴다. 대학의 정신과 이념은 먼 훗날 대학의 체제가 갖추어지고 국가와 사회가 안정된 후에 생각해 볼 문제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학이요 가장 우수한 대학들 가운데 하나인 연세대학교도 최근에 와서야 대학의 이념을 다시 정립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변하였다. 대학이 서열화되고 출신 대학의 명성에 따라서 능력을 인정받고 취직이 되는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벌사회에서 학력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지방대학도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차별있게 교육하여 배출하면, 그 대학의 졸업생이 해마다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교수가 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제 기업은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던 시대에서 능력만이 절대적으로 의미있고, 인간관계망은 다만 상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하나인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기업의 성장을 개관해 보면, 이러한 변화를 빨리 간파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적 우량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과 그렇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경영에 머물러 있으며 성장과 발전의 대열에서 뒤쳐진 기업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오늘날 지식과 기술과 경영은 세계적 경쟁 질서의 중심에 있다. 대학도 이제 국가 내에서의 경쟁에서 국제적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

다. 우리나라에서 몇 순위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의미없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미있다. 이렇게 세계화의 경쟁 마당에서 있게 되면서, 대학은 국내의 시장경제체제에 대응하는 발전전략만으론 안 되게 되었다. '대학의 정신과 이념 회복'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비로소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현재에 서서 유래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다.

대학은 이미 진리탐구의 전당이 아니며, 국가의 주요관심이요 주요기관이 되어 버렸다. 대학은 대학 자체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정신과 구조와 기능이 함께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크기가 작고 국민이 대단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이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대학의 질과 국가경제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해졌다. 옛그제까지만 해도 디지털, 인터넷, IT를 강조하던 우리나라는 이제는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를 강조하며, e국가에서 u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는 IT, NT, ET 같은 포스트모던 기술영역들을 포함하여 생존과 번영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기술과 지식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학도 연구개발의 전체적 아웃소싱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다. 국가의 경쟁력이 교육의 경쟁력이며, 교육의 경쟁력은 곧 대학의 경쟁력에서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돌아보고 구속력있게 회복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 II. 대학의 정신과 이념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시기적으로 대략 197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초에 슐라이에르마허와 훔볼트가 정립한 대학의 '고전적' 정신과 이념이 197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하였으며, 그 후에 시대적 변화와 조건에 따라서 '현대적' 정신과 이념이 강조되어 왔다. 슐라이에르마허와 훔볼트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정치와 종교의 감독 아래 있다가 겨우 자유롭게 된 학문이 대학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고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과학의 자율성을 국가적으로 조직함에서 찾았다. 학문연구와 교수의 최고 기관인 대학을 정치적 간섭과 사회적 관여들로부터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일은 대학의 국립화를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문의 연구가 연구과정의 내적 다이내믹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면, 국가의 정신문화와 도덕문화 전체가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정립되어 갈 것이다.<sup>1)</sup> 국가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나 고상한 생활은 학문에 근거한 바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국가와 개인은 학문을 통하여 계속 존속할 수 있으며 완전해져 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표현된 대학의 고전적 이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신이 들어 있다. 대학은 비정치적 학문연구기관으로 국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계에 있다. 대학에서 학문은 연구와 교수의 일치를 지향하며, 이를 저해할 수 있는 대학 외부의 요청들에 대하여 대학은 방어적 관계에 있다. 학문은 문화와 사회 전체를 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학은 학문의 집이요, 철학부는 대학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대학의 정신으로부터 학문의 자율성과

문화와 사회를 각인하는 학문의 힘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학자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연구와 교수의 '고독과 자유'<sup>2)</sup>를 향유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19세기에 대학은 연구와 생활의 조화를 이룬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학문과 낭만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제는 IT, NT, ET 같은  
포스트모던 기술영역들을 포함하여  
생존과 번영에 관련된  
모든 중요한 기술과 지식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의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는 대학도 연구개발의  
전체적 아웃소싱에서  
제외될 수 없게 되었다.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 아래서 현존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은 동양과 한국의 전통, 서양의 전통, 그리고 현대라고 하는 세 핏줄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들의 이질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의 고전적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1) F. Schleiermacher, Gelegentliche Gedanken über Universitäten in deutschen Sinn(1088).

2) H. Schelsky, Einsamkeit und Freiheit, Hamburg, 1970.

있으면서도 국가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아래서 사회의 고급문화를 보존하고 고급기술인력과 고급지도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회적 장치로 확인되고 있다.

오늘날 일원적 대학관은 사라져버렸으며, 과학들 상호간의 공동연구정신과 협력의식은 도려내어져 버렸다. 대학은 정치적 요구에 대한 무반성적 실용적 대응, 기술전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된 지속적 개혁, 그리고 과학의 세분화에 따른 제도적 분화의 길을 걸어 가고 있다. 대학은 이 길을 대학의 고전적 정신과 기능의 확인과 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제와 기술과 행정의 최적 상관구조의 실현을 통해 걸어 가고 있다. 철학은 대학에서 학문의 일원성의 이념을 고수해 온 보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대학은 중심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실천 및 응용과학들과 특수 및 첨단과학들에 내어주고 있으면서 연구의 균형과 조화를 관리하는 힘을 배양하는 대신에 응용과 특수와 첨단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다. 그 결과로 대학은 교육제원과 교육제도와 교육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양성과 상이성의 방향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다.

연구풍토 또한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은 보다 전문적이고 값비싼 연구들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는 이를 부추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연구는 인식관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발전관심과 이익관심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 대학은 점점 더 정치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하여 정학유착(政學癒着), 경학유착(經學癒着), 정경학유착이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크게 보아서 대학의 중심적이고 지

배적인 위치를 응용과 기술의 학문들이 점유하고, 순수와 기초의 학문들은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에서도 순수연구는 위축되고 응용연구는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학의 연구전통과 교수의 자아이해는 사회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대상과 주제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학자의 주관적 연구관심과 그러한 연구가 학문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왔다. 그리하여 대학 외적 조건과 요인이 대학 내적 학문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따라서 대학은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연구관심을 펼쳐가기를 고집하여 왔으며, 연구의 과학적 성격과 의미가 분명히 인정되는 한 사회적 기대에 역행하는 연구조차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의 개방적 풍토를 강조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전통과 현대의 갈등 아래서 오늘날 세계는 대학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연구풍토를 개방해 놓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대학은 자유로운 연구와 성찰의 장소, 창조적 실험의 장소, 최종적 의미물음의 장소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진리추구의 노력들이 결과 없이 종결된다고 해도, 노력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요청과 기대가 대학의 연구실에 너무 깊숙히 그리고 너무 강하게 침투해 들어오면, 대학은 사회의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바탕을 다지는 연구와 교수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자율의 능력으로 이에 적절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연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은 그 직접적인 목적규정에 있어서 연

구와 교수의 기관이요, 그 법적 형식에 있어서 국가의 공적인 시설이며, 그 기능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의미있는 정신적 문화재들 전체를 보존하고 창출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대학 교수는 학자요, 교사요, 관리자이다. 스프랑거의 표현을 빌리면, 이 셋을 모두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교수는 문화의 관리자(Kulturpfleger)이다.<sup>3)</sup> 대학생은 단순히 배우는 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연구자요 민족과 국가의 문화를 보존하고 창출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우리는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수용하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이는 대학의 거대화과 세분화의 추세 속에서 전통적으로 가꾸어온 대학의 정신이 사라져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그 안에 담겨 있도록 제도적 변형을 모색하는 일이 된다. 이는 또한 교수의 연구와 교수, 학생의 면학이라는 학문의 내적 자유와 자율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과제를 수용해 가고, 구조적 일원성을 보존해 가는 일이 된다. 따라서 대학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대학 내적 본질과 과제를 침해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 대학은 이를 연구와 교수의 구조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들어야 한다.

### Ⅲ. 독일 대학의 정신과 문화국가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대학의 거대화 또는 대중화(Vermassung)와 이로써 빚어지는 획일적인 학부제와 같은 잘못된 교육(Verschulung)으로 대학과 사회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본다. 이는 마치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유혹하여 미노타우로스를 낳은 것처럼, 이 시대의 지식과 기술에 반한 인간들이 낳은 새로운 괴물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는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수용하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이는 교수의 연구와 교수, 학생의  
면학이라는 학문의 내적 자유와  
자율의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적 과제를 수용해 가고,  
구조적 일원성을 보존해 가는 일이 된다.

에우로페의 신화는 우리에게 대학의 정신과 이념의 변질을 경고하고 있다. 인류는 황소 안에 숨어 있는 신을 보지 못하고, 곁으로 보이는 이 멧진 황소에게 반하여 이종교배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에 이종교배

는 또다른 이종교배를 낳곤 하여서, 지혜(sapientia)를 과학(scientia)과 바꾸었고, 열은 맛에 취하여 깊은 맛을 버렸으며,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형태와 색깔'<sup>4)</sup>을 즐긴 나머지 방종과 질병에 걸렸다. John Locke가 갖 태어난 아이를 백지(tabula rasa)로 규정하면서, "먼저 감각으로 인지되지 않은 것은 지성 안에도 없다."고 하였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였다. 그러나 로크의 말은 '지성 자체를

3) Eduard Spranger, Das Wesen der deutschen Universität(1930). In : *Hochschule und Gesellschaft* (Eduard Spranger Gesammelte Schriften, Band 10). Hrsg. von Walter Sachs, Heidelberg, 1973, p. 85.

4) politeia, 373b.

제외하고는'이란 단서를 달아야 마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이미 지성 안에 있는 것이 감각을 통하여 보다 더 의식적이 되고 투시적이 되기 때문에, 지성 안에 없는 것은 감각의 그물로도 결코 포착되지 않는 정신현상을 간과하였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로크의 또다른 유명한 말은 플라톤의 말, "신체(soma)의 덕이 영혼을 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혼(psyche agathe)이 영혼의 덕(arete)으로 신체를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로 양성한다."<sup>5)</sup>에 의하여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신체가 영혼을 도야하지 않고, 영혼이 신체를 도야한다. 옛날에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근처에도 오지 못했던 경제와 기술 같은 것이 오늘날 대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문학 같은 학문의 순수와 기초를 대학의 변두리로 내몰아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가 영혼을 도야하는 꼴이라서, 다만 대학만 거대한 괴물로 만들어서 인문학의 위기를 몰고 올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그들 자신을 스스로 외롭게 자신의 미로 속에 가두어 놓고 형태와 색깔만을 쫓아서 방황하는 미노타우로스로서 양산하고 있다.

슐라이에르마허는 학문하는 성격에 따라 학교를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와 연구능력을 훈련하고 공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구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교육의 과제와 목적을 혼동하거나 섞어 놓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대학에서는 교육목적의 섞임이 시장경제적 동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빨리 섞는 대학교수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섞으면 썩는다. 그래서 대학에서 서로 다른 교육목적, 과제, 기능 등을 일단 섞기 시작하면, 순수는 비순수에 의하여, 기초는 응용에 의하여 구축당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순수한 목적은 축소되거나 소멸되어버리고 실용적 기능적 목적만이 대학을 지배하게 된다. 그러한 대학은 슐라이에르마허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학문의 기관이 아니다.

플라톤 연구의 대가답게 슐라이에르마허는 섞음과 순수의 차이를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눈으로 대학을 보았으며, 대학교육의 기능을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별하였다.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일에서 목적에 따른 대학의 엄격한 기능분화는 대학개혁의 자명적 기준이 되어 왔다. 독일에서 대학은 세 가지 주요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 공대, 교대, 신학대, 의과대 같은 대학교(Universität), 예술대학, 전문대학, 행정대학 같은 전문학교(die höhere Schule), 그리고 철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하는 산학연계 직업대학인 아카데미이다. 대학교는 이 세가지 고등교육 형태의 핵심이요 기둥이다.

대학의 이러한 기능에 따른 형태구조는 마이스터교육과 조합의 전통으로부터 나왔다. 독일의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처음의 조합적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마이스터위원회를 통하여 보존하고 있다. 마이스터위원회는 대학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이비 학자들의 난동을 제어하고 있다. 또한 마이스터교육은 마이스터와 학생들 상호간의 친밀한 교제와 도야하는 대화에 근거하고 있

5) politeia, 403d.

다. 이러한 교제와 대화는 대학뿐만 아니라, 엄격한 연습과 훈련이 강조되는 수공업적 조합학교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 대학의 생명이 어떤 반짝이는 천재적 발상이나 독창성 발휘에 있지 않고, 마이스터의 지도 아래서 수공업적 끈기와 완벽을 기하는 쟁이의 정신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학문적 전통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상적 연구생활을 통하여 정진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긴장의 장 안에서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 가는 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훔볼트가 대학의 이념으로 강조한 연구와 교수의 일치는 언제나 이미 그렇게 현존하여 온 독일 대학의 본질을 개념화한 것일 뿐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독일의 대학에서 그러한 전통이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본다.

스피노자가 ‘철학하는 것의 자유’ 또는 ‘사유의 자유’로 번역하는 ‘libertas philosophandi’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에<sup>6)</sup>, 이 개념은 독일 대학의 정신으로 자리잡았다. Halle 대학의 자연법학자 Nicolaus Gundling(1661~1729)이 1711년에 한 유명한 연설, ‘할레 대학의 자유’에서 그는 대학이 자유의 집(Atrium libertatis)이어야 하며, 전승되어 온 권위를 따르지 않고 교수하며 저술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내용들을 강조하였다.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보다 더 유용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학문의 연구에는 어떠한 제약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진리의 인식은 ‘지배의 한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

야 한다.

Halle와 함께 계몽의 대학으로 유명한 Göttingen은 독일에서 일체의 사적 재정부담 없이 국가의 재원으로만 운영된 첫 대학이다. 이 Göttingen 대학에서는 부임하는 교수들에게 교수와 집필의 자유를 보장했고, 1737년에 공포한 철학부의 정관(Statut)에서는 “모든 교수들은 책임의식에 의해 동반된 교수의 자유(docendi sentiendique libertate)와 이에 대한 확신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Göttingen 대학은 종교와 국가와 좋은 풍속을 저해하는 가르침으로부터 교수가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며, 교수는 강의에서 다룰 교재와 인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대학교수의 권위는 종교와 국가같은 초세속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의 상징들을 ‘풍속을 저해하는 가르침’과 나란히 두어, 교수가 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고, 교수와 집필의 자유를 향유하였던 것으로부터 형성되었다. Göttingen의 정관은 그 후에 독일 대학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었다.

이상과 같은 Halle와 Göttingen의 고전적 예는 계몽의 정신으로 꽃피어났다. Immanuel Kant가 1783년에 쓴 유명한 문장, “계몽은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성으로부터의 출구이다. 미성숙성은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따르는 능력의 부재이다. …… 그러므로 Sapere aude! 너 자신의 고유한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sup>7)</sup>, 이 문장이 표방하고 있는 정신보다 더 중요한 대학정

6) Baruch Spinoza,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1670.

7) I. Kant, *Beantwortung der Frage : Was ist Aufklärung?*(1783). In : *Was ist Aufklärung? Thesen und Definitionen*, Hrsg. von Ehrhard Bahr. Stuttgart : Reclam, 1974, S. 8~17.

신은 없다. 학문의 역동성과 일원성(Dynamik und Einheit der Wissenschaften), 연구와 교수의 일치(Einheit von Forschung und Lehre), 학문의 자유와 자유분방성(Freizügigkeit), 지식의 이념과 사회적 책임의 연관성 등으로 정리되는 유명한 훔볼트의 대학교육의 이념은 이러한 계몽의 정신을 대학의 이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쉴스키는 현대의 국가를 문화국가와 기술국가로 분류하였다. 문화국가는 국가를 통치하고 위하여 학문을 통제하지 않는 국가이다. 문화국가는 학문이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서 연구되고 교수되도록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게 최대의 자율을 보장한다. 학문은 이러한 자율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사물을 분석하며 사회의 지도계층을 도야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술국가는 국가 통치의 차원에서 학문을 관리한다. 그리하여 학문이 집권과 통치에 봉사하고 기여하도록 구속한다. 학문이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향유하려면, 학문은 학문의 집인 대학과 학회를 자율적인 정치세력으로 만들어 사회에서 일종의 정치적 세력집단으로 현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의 전통적인 대학들은 대학의 탄생 초기에서부터 이러한 자율적 정치세력으로 자아를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정치적 자율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누려왔다. 오늘날 학문이 정치적 자율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정치적 행위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금 정치적 자율의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하곤 한다.

나폴레옹에게 패한 프리시아의 빌헬름 3세는 “국가는 물리적 힘에서 상실한 것을 정신적 힘으로 보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프리시아를 군사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 바꾸는 정책을 폈다. 베를린은 “성실(Redlichkeit), 학식(Gelehrsamkeit), 그리고 철학하는 정신(philosophische Geist)으로 가득 찼다. : 민족의 정신을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선 다만 프로메테우스의 불꽃만 있으면 되었다.”<sup>8)</sup> 그리하여 베를린에는 계몽기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낭만적 학예의 마당을 마음껏 펼쳤으며, 프리시아는 철학, 문학, 음악 등에 있어서 서구의 중심적 문화국가로 변신하였다.

문화국가 프리시아에서 대학들은 Halle와 Göttingen 같은 계몽주의 정신으로 가득찬 대학들의 개혁사상을 수용하여, 합리주의, 이상주의, 신인문주의에 근거한 교육이념을 대학의 이념으로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책임만이 강조되는 학자들의 공화국이 되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국가가 먼저 문화국가가 되어서 대학들이 계몽의 정신으로 활짝 꽃피어난 것이 아니라, 문화국가로의 변신에 뜻을 둔 계몽군주의 주도 아래서 개혁된 대학들이 문화국가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다.

훔볼트는 이러한 계몽정신의 바탕 위에서 교육의 이념을 정립하였다. 그는 일반적인 인간도야(Allgemeine Menschenbildung)의 바탕 위에 전문적인 직업도야(Spezielle Berufsausbildung)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

8) Wilhelm Dilthey, *Studien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Geistes*, Ges. Schriften Bd. III, Stuttgart, 1969, S.111.



념과 대학은 학문의 왕국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개인의 삶의 욕구나 직업적 관심과 연결된 욕구는 분리되어 일반교양교육의 성공적인 실현 이후에 도모되어야 한다. 이 둘을 섞어 놓으면 교육은 불결해지고, 우리는 온전한 인간도 사회계층의 온전한 시민도 양성할 수 없다.”<sup>9)</sup> 여기서 ‘실현 이후에’

는 ‘일반교양교육의 기초 위에’라는 의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한다. 일반적 인격의 도야와 연관되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전문적 직업도야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 해롭다. 따라서 구조를 바꾸거나 뒤섞지 않고 이 둘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교육만이 온전한 ‘공동체적 개인’을 양성하는 교육일 수 있다.

“학문의 왕국은 민주지배(Demokratie)가 아니다. 민주지배(Ochlokratie)는 더더욱 아니다.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의 최선자지배(Aristokratie)이다. 가장 우수한 자들이 지배하여야 한다.”<sup>10)</sup>는 Schelling(1803)의 주

장과 “독일 대학은 의지와 정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학의 모든 연구잠재능력을 독일의 산업이 부여하는 과제의 연구에 쏟아야 한다.”<sup>11)</sup>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회 의원인 Franke(1978)의 주장 사이에는 긴 세월과 함께 대학 정신의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차이가 놓여 있다.

독일의 대학은 1960년대에 큰 구조적  
변천을 겪었다. 대학의 전통에서  
학문과 교양에 본질적으로 속하지 않는,  
낮선 대상이라고 배제되었던  
현실의 영역들인 기술과 경제가  
대학에 들어왔으며,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은 학문과  
도야의 연구소(Institut)에서  
학문을 매개하고 연구를 수행하나,  
이러한 모든 활동을  
전문적 직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도(Institution)가 되었다.

Schelling의 대학관은 학문과 진리의 상호 관련과 대학이 진리의 인식과 학문의 매개를 위하여 창조된 적합한 장소이며 기관이라는 이해가 담겨 있다. Franke의 대학관은 학문의 생산과 매개에 대한 구성적 관심으로 되어 있다. 대학은 오늘날 일종의 서비스산업이 되었다. 잘 짜여져 있으며 제시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그러

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제도이며 기관이 되었다.

고전적 대학에서는 대학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추구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었고 추

9) W. von Humboldt, Unmapgebliche Gedanken über den Plan zur Einrichtung des Litauischen Stadtschulwesens. in : W. von Humboldt, *Anthropologie und Bildungslehre*, Hrsg. von A. Flitner, Düsseldorf. 1956, S. 76.

10) Schelling, Vorlesungen über die Methode des akademischen Studiums. 1803. Clemens Menze, Zum sturkturwandel der deutschen Universität. In : *Vierteljahres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ädagogik*, 57(1981), S. 90~107, hier S. 90에서 재인용.

11) Menze, a.a.O., S. 90.

구하면 되었는데, 현대의 대학에선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여야 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대학생활을 속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될 것이다. : 판짓하지 말라. 판짓하면 내쫓긴다. 네 동료들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어라. 그들이 고기를 잡으면 너도 고기를 잡고, 그들이 창을 던지면 너도 창을 던져라. 여기서 '판짓'은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따라서 순수한 연구의 정열을 불태우는 일이다. 이상의 두 이해와 입장에서 우리는 독일 대학의 구조적 변천이 얼마나 급속하고 과격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볼 수 있다. 이 둘 사이에는 '대학'이라는 이름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

물론 대학도 사회적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독일의 대학은 1960년대에 큰 구조적 변천을 겪었다. 오늘날 연구와 교수의 일치라는 순수한 도야의 이념은 결코 자명적이 아닌,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현실에는 없는, 지극히 문제시되고 있는 이념이다. 교수의 자유는 간단없이 제약되고 있으며, 학문과 교양과 진리의 관련은 이미 포기된 지 오래다. 대학의 전통에서 학문과 교양에 본질적으로 속하지 않는, 낯선 대상이라고 배제되었던 현실의 영역들인 기술과 경제가 대학에 들어왔으며, 통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대학은 학문과 도야의 연구소(Institut)에서 학문을 매개하고 연구를 수행하나, 이러한 모든 활동을 전문적 직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제도(Institution)가 되었다.

독일에서도 대학은, 심하게 말하면 직업대학, 전문대학이 되어버렸다. 나이든 교수들은 제도의 붕괴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매

일 새로워져서 그만큼 낯설어져 가는 대학이라는 집에 그냥 안주하고 있다. 젊은 교수들은 이미 오래 전에 쇠신되었어야 하나 여전히 낡은 조직으로 머물러 있는 보수적 집에서 그냥 인내하며 적응하고 있다. 두 집단이 오늘날 모두 유감스럽게도 '학문의 왕국'에서 주택난을 겪고 있다.

#### IV. 대학을 매력있는 상품으로 포장하기

대학은 오늘날 모든 것을 다 매매하는 슈퍼마켓이나 잡화상 같다. 또한 탈선한 열차와 같다. 대학은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고등교육의 구조와 이념을 시장경제에 팔아버렸다. 연구와 교수의 일원성은 없어졌으며, 이제는 의미조차 존중하려 하지 않는 풍토이다. 연구의 무한성은 시대적 지배가치들인 '새로운' (新), '포스트모던', '퓨전', '융합', '유비쿼터스' 같은 가치들에 의하여 무한히 동반되는 전공영역의 분화, 연합, 변화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학이 순수한 학문연구의 기관으로 현존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다만 양적 팽창과 재정적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학문과 과학의 구조적 비합리성이 작용하고 있다.

대학은 예나 지금이나, 호황을 누렸을 때나 현상유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나를 막론하고, 교수와 학생이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표현하고 즐길 수 있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 대학이 학문으로서의 직업의 바탕 위에서 시대가 요청하는 가치들과 교양교육의 내용들을 잘 선정하고 조직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에 대학은 이미 대학의 과제를 바르게 성취할 수 없거나 필연적으로 괴리되어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학은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것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교육하지 않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대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첫째, 학사, 석사, 박사라는 학위과정, 둘째, 의학, 법학, 신학, 공학 등 국가와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사법, 행정, 기술 등 각종 영역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정, 셋째,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사, 평생교육사, 보육사, 복지사 등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기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은 순수한 진리탐구의 열정과 관심의 결정체이며,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과정이다. 대학은, 그 발생과 발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듯이, 처음부터 순수한 진리탐구의 열정과 관심의 결정체라는 첫 번째 기능의 바탕 위에서 의사, 판사, 목사라는 국가관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두 번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로 접어들면서 확대되고 세분화된 두 번째 기능이 대학의 중심기능이 되었다. 이상의 두 기능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대학을 연

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상과 같은 두 방향으로 특성화하여 대학의 상품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성화가 매력이다.

대학교육을 매력있게 만든다고 할 때에 접근가능한 영역은 일반교양교육과 전공기초교육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의학, 공학, 법학, 건축학 등 전문인력을 배양하는 전공영역들에 있어선 학문적 교양교육과 전공기초교육이나 직업전문적 교양교육

**대학은 저마다 특색있게 연구중심으로  
또는 교육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일반교양교육과 전문직업교육도  
특색있는 내용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에 경영의 자율성을  
큰 테두리로 부여하여 학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개발, 교직원 채용,  
등록금의 책정 등에 있어서  
대학이 최종적 결정기관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과 전공기초의 지식이 많은 영역에 있어서 동형태적(isomorph)이다. 그래서 이들 영역에 있어선 전공관련적 교양과 전공특수적 지식의 학습이 성공적 직업수행을 보장하는 기초능력의 배양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를 타산 지식으로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한번 살

펴보겠다. 연세대 공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학부제 아래서 교육과정의 낙후성과 제한된 교육자원이라는 이중적 결핍을 안고 있고, 산업계의 교육적 요구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유리되고 있는 현상에 처하여 있다. 게다가 이공계 기피현상이 가속화되어 우수한 대학원생이 고갈상태에 있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여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효율

적 방안을 '공학교육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개발을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나 핵심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부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인사평가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려서 연구교육을 강화하며 연구를 선택과 집중의 모습으로 특성화한다는 데에 있다. 종래의 공학교육은 일반교양 ⇒ 기초과학 ⇒ 전공기초 ⇒ 전공 ⇒ 대학원이라는 일방향적 전달교육체계를 누적적인 교육방식으로 몰아가는 형식이었다. 이를 새롭게 개선하여, 과학적 사고능력의 배양 위에 → 입체적 실험교육 ⇔ 전공이론 ⇔ 공학교양의 세 축이 상호교호적으로 작용하는 교육을 베풀고 그 위에 → 창의적 실험실습교육을 구축하는 구조로 공학교육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체계는 일방향적 전달체계에서 다축적 사고력 중심체계로, 축적적 교육방식에서 통합적 교육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의 고등교육의 현실이 형편의 좋고 나쁨의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전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공학교육의 상품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전공과 직업의 밀접한 관계가 자연과학의 영역에선 다만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리고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또는 문화과학의 영역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은 물리학이나 화학을 전공하고 자동차회사나 제철회사에서 생산라인의 자문기사로 일할 수 있고, 사회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기자나 카피라이터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는 사범대학 같은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공에서도 그렇다. 전공학문이

요구하는 자질과 교사로서 요구되는 자질은 같지 않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전공학문의 지식을 학교지식으로, 학교지식을 다시 학습지식으로 전환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며, 새로운 학교지식과 학습지식을 교수·학습의 효과적 구조로 구성하고 학습심리학적으로 적절하게 설정하며 평가하는 능력이다.

현대는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급속히 알려지고 비싸게 소비되는 시대이다. 모든 대학이 평가수준과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과 기능이 차별되지 않는 동일한 상품들을 파는 슈퍼마켓으로 있는 지금의 현실은 조속히 극복되어야 한다. 대학은 저마다 특색있게 연구중심으로 또는 교육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일반교양교육과 전문직업교육도 특색있는 내용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에 경영의 자율성을 큰 테두리로 부여하여 학생의 선발, 교육과정의 개발, 교직원의 채용, 등록금의 책정 등에 있어서 대학이 최종적 결정기관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대학은 특색있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대학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저비용 저품질 일반화로 확인되고 있는 우리의 대학교육 풍토가 이제 고비용 고품질 특성화로 바뀔 때가 되었다.

## V. 맺는 말

오늘날 대학은 자연과학, 기술공학, 의학 등 가치중립적 영역에 속하는 과학들과 법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가치관련적 영역에 속하는 과학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너무나 자명적이어서 누구도 대세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인문학에서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이 호황을 누리고 철학을 비롯하여 그 외의 다른 어문학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도 호황을 누리는 학문들이 단지 높은 시장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우리는 '학문'과 '과학'이라는 개념을 '지식'과 '기술'이라는 개념과 섞어서 아무런 반성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과 정치의 세계에서 '과학'이라는 말은 순수기초학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폭력이 되었다.

가치중립적 과학자들이 반드시 가치비판적 학문들과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편파적이고 여론의 독점을 추구하는 의식과 이론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경향은 독일과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넓게 퍼져 있다. 사람들은 대학에서 점점 더 권력지향적으로, 분리주의적으로, 개인중심적으로, 분산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학문을 그 고유한 가치에 있어서 사회의 공개적 지평에서 상호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교수들은 대학과 학문을 이용하기만 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력들에 의하여 무능력하게 요리되고 있다.

대학은 오늘날 철저히 대중화되었다. 대중

화와 더불어 대학도 익명과 고독이 가득찬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교실에서 생동적인 의사소통과 비판과 격려의 말들이 사라지고 있다. 보직, 수당, 프로젝트 등 '형태와 색깔'을 쫓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의 패리(悖理)가 넓게 전개되고 있다. 대학의 본질, 목적, 기능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졸속하게 추진된 학부제를 비롯한 정치적으로 강제된 대학제도의 개혁은 이러한 추세가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고 있다.

대학은 오늘날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아카데미한 제도로, 진리와 자유에 기초한 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격과 도야의 마당으로 바로서 있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지적·예술적 엘리트들이 뽑어내는 아우라(Aura)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온갖 천박성이 춤추는 대중의 사이버학문의 전당으로 전락

**국가의 경쟁력은 오늘날  
대학의 경쟁력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인문학은  
**후학의 급속한 감소와 더불어  
고사와 쇠퇴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공계는 시장경제적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들의 기피영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만 대학의 개혁과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일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토대를 든든하게  
재건하는 일이다.**

하고 말았다.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대학개혁의 틀은 한편으론 고전적 대학교육의 이념을 보수하고 있는 학문적 엘리트들의 대학교로, 다른 한편으론 전문적 직업능력을 훈련하고 민주시민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격을 도야하는 전문·직업·기술 대학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모든 대학들이 자체 안에서 가능한 한 조화롭

고 적절하게 현대사회의 요구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율의 공간을 활짝 열어 놓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은 서로 대등할 수 없는 명칭과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관심을 가지고 병존하고 있었다. 1990년대 이래로 우리는 '대학교'로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을 통일하고 이와 더불어 대학의 기능까지 무분별하게 만듦으로써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방기(放棄)하였다. 이제 지나간 터널을 빠져 나와, 대학에서의 학창시절이 유익하고 의미있으며,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을 가꾸는 일에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의 이념이 확고히 서 있는 곳에서 사회적 변천에 대한 대응은 대학의 전면적 개혁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다만 본질의 변질없이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보존하고 심화하는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 조절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지위는 정치·경제적으로 크게 격상되었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의학,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과 스포츠과학 등의 영역에서 한국의 위상은 여전히 세계적이지 못하다.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평가되는 학자와 예술가들이 있다. 그러나 대학과 연구기관의 권위는 요원하다. 이는 연구의 집으로서의 대학의 질이 국제적 비교평가에서 상위권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은 빈약하고, '기여우대제' 같은 제도를 통하여 사회의 부가 대학으로 공개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오늘날 대학의 경쟁력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인문학은 후학의 급속한 감소와 더불어 고사화 쇠퇴의 위기에 놓여 있고, 이공계는 시장경제적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들의 기피영역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대학의 정신과 이념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만 대학의 개혁과 성장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일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토대를 든든하게 재건하는 일이다. **한광훈**

#### 오인택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교육철학과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철학회 회장, 기독교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1981년부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교육철학』, 『파이 데이아』, 『한국현대교육철학과 교육사학의 전개』, 『기독교교육』 등이 있다.